



2025 특별호
시청자권익정보센터

시청자권익보호 동향리포트

정책이슈 '장애인과 미디어'

지상파와 OTT 플랫폼의
시각·청각 장애인 방송 접근성 현황과 개선 방안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어쥬' 앱 통합 버전 공개
-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서비스 개편
- 미디어 AI 플랫폼 서비스 오픈

권익보호

- '쿠팡 납치광고'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 재난 종료까지 KBS 재난방송 송출 의무화 법안 발의
-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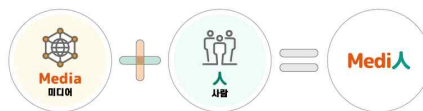
01

정책이슈분석

장애인과 미디어

- 01. 지상파와 OTT 플랫폼의 시각·청각 장애인
방송 접근성 현황과 개선 방안
- 이영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지상파와 OTT 플랫폼의 시각·청각장애인 방송 접근성 현황과 개선 방안¹⁾



이영희(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1.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시각·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OTT(Over The Top) 서비스,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소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도 OTT의 성장은 눈에 띄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5)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 세대에서 OTT 서비스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89.2%에 달했다. 스마트 기기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역시 방송 및 동영상 앱(27.8%)으로 조사됐고, 유튜브는 7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유지했으며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의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로써 OTT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보고자 하는 이용 욕구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 시청자미디어재단(2020)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시각·청각장애인 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OTT 서비스 이용 욕구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9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5%의 이유도 대부분 접근성과 이용의 불편함 때문이었다. 이는 장애인방송이 제공되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폐쇄자막과 한국수어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면해설이 제공되어야 온라인동영상 콘텐츠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이 OTT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선호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폐쇄자막의 필요성을 가장 느끼고 있었으며, 한국수어의 필요성은 뉴스, 교양 및 생활정보의 순으로 꼽고 있었다. OTT 서비스에서 시각장애인이 보고자 하는 장르도 이와 비슷했는데, 드라마, 영화, 예능 및 교양이 1순위부터 3순위를 차지했다. 결국 시각·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스마트폰 이용을 선호하며, 보고 싶은 콘텐츠 역시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1) 본 글은 2024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보고서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내용을 주요하게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여기에 더해, 실질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메뉴 접근과 조작이 음성지원으로 가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음성인식으로 원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검색하고, 결제를 진행하며, 재생과 정지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해설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자미디어재단(2020)의 조사에 따르면, 연 매출 1억 이상의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가운데 38.6%는 온라인동영상 콘텐츠에 제공되는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웹사이트의 웹(web) 접근성 인증 미획득 비율은 90.4%였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앱(app)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95.2%로 더 높게 조사된 바 있다. 이후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1년과 2024년 조사에서도 해외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에 비해 국내 사업자들은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에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각·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방식으로 정보 습득을 하거나 문화를 향유할 것이라는 막연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행태나 욕구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과 그 필요성은 장애인 역시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표적인 해외 OTT 사업자 넷플릭스는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폐쇄자막, 화면해설 제공 등에서 활발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국내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방송 서비스 확대와 플랫폼 접근성 개선, 관련 법·제도적 지원이 함께 논의 되고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국내 방송사업자와 OTT 플랫폼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서비스 현황

국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OTT 플랫폼 사업자와 별도로, 정부의 제작비 지원을 받아 각자의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비실시간 VOD(Video On Demand)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 재단(2024)이 KBS, MBC, SBS, EBS의 VOD 장애인방송 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VOD 제작 편수의 약 20%를 넘는 비율로 장애인방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KBS는 2023년 기준으로 약 23%의 VOD 프로그램에 폐쇄자막을 제공하였고, MBC는 약 22%의 프로그램에 장애인 방송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상파에서 방송했던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을 모두 VOD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폐쇄자막의 경우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화면해설의 경우에는 추가 기능 개발이 필요하거나 재제작 절차가 필요하여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는 국내 OTT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서비스 현황도 함께 알아보았는데, 인터뷰에 응한 사업자는 웨이브(SKT)와 U+모바일(LGU+) 두 곳에 그쳤다. 웨이브(SKT)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방송콘텐츠 기준 약 30%를 장애인방송으로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U+모바일(LGU+)은 비율은 확인이 어려우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가치봄 영화 376편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EBS²⁾를 제외하면 지상파 방송사와 OTT 사업자 모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이나 앱 접근성을 완전히 확보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달리, 해외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한글 자막을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역시 2024년 9월 기준으로 드라마 1940편(148종), 영화 38편, 버라이어티 178편(23종), 다큐멘터리 26편(9종)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제공 편수가 증가한 수치이다.

<표 1> 넷플릭스 한국어 화면해설 서비스 제공 현황

장르	~2021년 9월 기준	~2024년 9월 기준
드라마	911편(66종)	1940편(148종)
영화	21편(21종)	36편(36종)
버라이어티	37편(5종)	178편(23종)
다큐멘터리	7편(2종)	26편(9종)

출처: 시청자미디어재단(2024)

이러한 이유로 시각·청각장애인 가운데 현재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이 대부분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용 현황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0년 조사에 이어 2024년 조사에도 변함없이 확인되었다.³⁾

3. 시각·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

지난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폐쇄형 자막 같은 장애인방송 콘텐츠가 시각·청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면서, OTT 플랫폼 구독의 기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공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넷플릭스이며, 국내 OTT 서비스는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한 편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소외 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늘리고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이미 진행

2) EBS 장애인서비스 페이지(<https://www.ebs.co.kr/free>)

3) 시각·청각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0년 설문과 2024년 인터뷰 모두에서, 유튜브를 제외하면 넷플릭스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중이다. 지난 2023년 7월에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2조의10 제1항)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이를 기반으로 OTT 서비스 사업자가 장애인의 영상콘텐츠 이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장애인방송 비실시간 서비스와 관련한 통신 관련 법령

법률	조항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1항/제2항	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8.]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6조의3(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3.]

이어 2024년 1월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되어 장애인방송을 제공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추가되었다. 제16조의3(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1항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정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이 조항은 장애인방송 제공에 의무조항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적용 범위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체 제작’한 영상 콘텐츠로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의미한다. 2022년 6월 10일 일부개정을 통해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포함되었다. 개정된 법에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가 추가되었고, 이를 통해 OTT 사업자들은 법적인 지위가 마련됨으로써 영상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서정윤, 2022.04.22.). 이 안에는 폐쇄자막과 화면해설 제작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OTT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유통되는 영상 콘텐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한국수어·화면해설 등의 콘텐츠 접근성 보장은 방송 분야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것은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2024)은 시각·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콘텐츠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해외 법제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출된 8가지의 핵심 개선 요소는 △비실시간 장애인방송의 법적 의무화, △디바이스 및 플랫폼 접근성 보장, △정부의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장애인방송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자의 정기적 보고 의무화, △국민적 관심 콘텐츠(예: 스포츠 등)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공 확대, △정책 협의체 구성, △OTT 사업자의 방송 통신발전기금 분담 등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 제공 의무화, △장애인방송 제작사 선정 기준 강화, △자막의 맞춤형 기능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었으며, 정책 협의체 논의 사안으로는 △인센티브 방안 논의 △정기 수요조사와 피드백 반영, △화면해설 콘텐츠 선정 기준 마련, △장애인방송 제작 인력 및 2차 저작권 문제 정비, △장애인방송 홍보 및 정보 제공 플랫폼 마련 등이 언급되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은 방송 및 인터넷 동영상 모두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 법령과 「방송법」 및 통신관련 법령 간의 조화를 맞추기 위하여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인터넷 및 뉴미디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IT 강국 한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인터넷 동영상 접근성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의 문화 참여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교육, 여가, 정보 습득 등 삶의 전반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국내 콘텐츠 산업이 해외로 수출되거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될 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과거,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에서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조항을 마련했던 것처럼, 이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 (2022).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8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정윤 (2022.04.22.). 업계 “OTT 법적 지위 부여 법·유료방송 기술 중립 법 통과 환영”, 지디넷코리아.

URL: <https://zdnet.co.kr/view/?no=20220422145946>

시청자미디어재단(2020).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서비스 현황 조사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2021). 화면해설 통합 플랫폼 서비스 사전조사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2024).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5) 2024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주요 결과.

02

국내동향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 시청자미디어재단,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어줌' 앱 통합 버전 공개
- 방통위·코바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서비스 개편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AI 플랫폼 서비스 오픈

권익보호

- 방통위 쿠팡 납치광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 '재난 끝날때까지 KBS 재난방송 송출 의무화' 법안 발의
-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시청자미디어재단,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어줌' 앱 통합 버전 공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자막 변환 앱 '이어줌'에 인공지능 수어 변환 기능을 추가한 통합 버전을 7월 7일부터 새롭게 배포했다. '이어줌' 통합 앱은 기존의 음성을 자막으로 바꿔주는 기능에 더해, AI 기반 아바타를 활용한 수어 변환 기능을 베타 서비스로 제공해 이용자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은 자막뿐만 아니라 수어로도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앱은 간편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재단은 향후 서비스 운영 기간 동안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앱 기능의 품질 향상과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대면 인터뷰 방식의 심층조사도 병행하며, 참여자 모집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자막-수어 변환 앱 「이어줌」 2025 주요기능 안내

주요기능

음성-자막 실시간 변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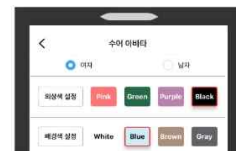
음성-자막-수어 (베타서비스) 변환 기능 제공*



*7월 중 '이어줌' 통합 앱 배포 예정

주요기능

자막-수어 변경 옵션 제공



(자막) 위치, 크기, 색상, 화자분리 등 변경 기능 (수어) 위치, 크기, 성별, 배경색 등 변경 기능

🔊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이어줌] 검색 후 다운로드 →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시청자미디어재단

🔊 더 알아보기 : 시청자미디어재단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방통위·코바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서비스 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가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Response Analysis on Content of the Internet, RACOI)'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이 서비스는 시청률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방송 콘텐츠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 댓글과 게시글 등을 수집·분석해 대국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 개편으로 분석 범위가 확대되고 정밀도도 높아졌다. 관련 게시글 수, 댓글 수 등 정량적 분석 결과뿐 아니라 연관어 분석, 긍·부정 반응 등 정성적 분석까지 제공해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지상파·케이블 방송은 물론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 K-OTT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분석 대상으로 포함해 활용 범위와 가치를 높였다. 이 데이터는 방송사, 광고회사, 제작사 등 유관 업계는 물론 학계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RACOI 대표 누리집(www.racoi.or.kr) 또는 코바코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에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 더 알아보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기관소개 > kobaco 소식> 보도자료([Click](#))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AI 플랫폼 서비스 오픈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문(full-text) 검색과 생성형 AI 기술을 통합한 미디어 AI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디어 AI는 재단의 방대한 미디어 데이터를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으며, 미디어 조사·연구 및 간행물 등에 대한 데이터 검색에서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생성까지를 아우르는 통합형 플랫폼이다. 미디어 AI 플랫폼은 누구나 회원가입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미디어 AI 플랫폼'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AI 메타 검색'은 미디어 조사·연구 및 간행물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원스톱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간행물별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도순 정렬, 발행일·저자·제목 등의 조건 설정, 본문 내 이미지 및 통계표 검색 기능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검색 시 단순 키워드 일치 여부만이 아니라, 본문 전체 내용을 분석해 정확도 높은 결과를 제공한다. 보고서 안에 포함된 표만 따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정책 수립이나 연구 목적의 통계 자료 활용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더 알아보기 : 한국언론진흥재단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권익보호

방통위, 쿠팡 납치광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각종 누리집이나 SNS 등에서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앱이나 누리집으로 강제 이동되는 광고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을 점검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되며 강제 이동을 유발하고, 쿠팡의 내부 광고 관리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확인돼 이번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내세워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제한하는 부분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❶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재난 끝날때까지 KBS 재난방송 송출 의무화' 법안 발의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재난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7월 10일, 재난 주관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KBS가 재난의 전개 속도, 피해 규모,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난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막 확대, 음성 안내, 수어 통역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전달 방식도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재난방송이 제한된 시간에만 송출돼 긴급성과 심각성 전달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제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TV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재난이 소외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공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❶ 더 알아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Click](#))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담고 있다. 이들 사업자에 의해 삭제·차단된 불법 촬영물은 총 18만 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사업자들이 유통 방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 착취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과 조치 현황이 포함됐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각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 ▲유통 방지 관련 절차의 마련 및 운영 현황 ▲유통 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 대상은 온라인 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포털 등 부가통신 사업자 가운데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터넷 사업자들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총 231,261건을 이용자, 대리신고기관, 삭제요청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했으며, 이 중 181,204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개년 불법 촬영물 등 신고 및 처리 현황 >

연도	신고건수	삭제·접속차단건수
2024년	231,261	181,204
2023년	144,813	81,578
2022년	218,931	153,491

* 중복신고, 불법 촬영물 미해당, 이미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건과 실제 삭제·차단 건수의 차이 발생

이는 전년도 대비 신고건 86,448건(59.7%), 삭제·차단건 99,626건(122.1%)이 증가한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 자체가 늘었고, 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한 결과로 분석된다.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본 보고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시청자 권익보호 동향 리포트」입니다.
시청자 권익정보 플랫폼 '미디어인(Medi人)'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ediin.or.kr>